

# 벚꽃은 다시 피었건만... '기억의 벽' 앞 통곡소리는 그대로

## 그리움으로 애끓는 '탄식의 팽목항'

### 유족들 빛바랜 노란 리본 보며 “미안해, 미안해...” 체전 앞둔 진도체육관은 ‘세월’의 흔적 사라지고 손자 잃은 할머니는 “꿈에라도 찾아와라” 눈물만

금요일에 돌아오겠다던 아이들은 돌아 오지 않았는데 진도 팽목항에는 다시 하얀 벚꽃이 흩날렸다.

꼭 1년 전 수학여행을 갔다 오겠다며 제 주행 여객선 세월호에 몸을 맡겼던 아이들은 사나운 맹골수로에 갇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바닷속 드러누워 있는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진도 팽목항. 통곡의 땅 팽목항이 기다림의 항구로 변하는 동안 방파제 곳곳에 매달린 노란 리본은 색이 바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색 바랜 리본에 적혀있던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험겨운 듯 겨우 버텨내고 있었다.

이제는 별이 된 아이들을 기리며 방파제 곳곳에 달아둔 모형별. 세월호 참사 100일째까지도 노란빛을 자랑하던 303개의 이 별들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나마 남아있는 별들도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삭아 버린 줄 하나에 위태롭게 의지할 뿐이다.

시커먼 바닷속에 갇힌 생때같은 자식 생각에 통곡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팽목항.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곳에도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베어내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쉬지 않고 돌던 세 타기는 멈춰 선지 오래다. 세타실 앞으로 언제나 줄 맞춰 서있던 30여개의 빨래 건조대도 할 일을 잃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초기 세월호 희생자 가족 1000여명과 그보다 많았던 자원봉사자, 전국에서 보내온 의료품과 구호품이 곳곳에 쌓여있던 진도 체육관에서는 참사 당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체육관 안에 빼곡히 깔려있던 매트리스 대신, 배구 코트와 탁구대가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실종자 가족들의 피로를 풀어줬던 안마실은 ‘심판실’로 제 모습을 찾았

다. 노란 추모 글이 빼곡히 붙어 있던 체육관 정문에는 ‘제5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D-12’라는 포스터가 대신했다.

떨렁하기만 했던 팽목항도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봄비가 시작됐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찾아온 아빠, 엄마, 친구들과 밤새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교복을 입고 찾아온 학생들. 추모객들은 저마다 팽목항을 지키고 서있는 빨간 등대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희생당한 학생들에게 주려고 방파제에 올려둔 바나나 앞에서, 초코파이 앞에서 추모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미안해, 미안해’라는 말만 속삭였다. 1년 전 손자를 잃은 한 할머니는 난간을 부여잡고 ‘제발 꿈에서라도 찾아와 달라’고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방파제 벽에 조그만 타일로 만든 ‘기억의 벽’. 무릎 높이의 방파제 벽면은 전국에서 보내온 4656장의 손바닥 만한 타일로 온통 뒤덮였다. 타일에는 저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글귀와 그림이 새겨졌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담겨있었다. 단 1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를 향한 원망 섞인 글도 보였다.

살아있었다면 올해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주민등록증 모형의 타일도 눈에 띄었다. 동생 준석이 쓴 타일에는 ‘준혁이 형아 보고 싶어’라고 적혔고, 참사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는 ‘좌절하는 우리 아들 농구하러 가자~ 빨랑와’라고 타일에 새겼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가 잠든 맹골수로에 다녀온 유족들은 팽목항 방파제를 가득 메운 ‘기억의 벽’ 앞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지 못했다.

/진도=박기웅기자 pboxer@



못다 핀 넋 위로 15일 진도군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령제’에 참가한 무용수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씻김굿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아픔 조금이라도 달래지길... 팽목항서 위령제

### 씻김굿·추모 영상 등 희생자 가족 400여명 참석

세월호 참사 1년을 하루 앞둔 15일 희생당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다.

416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15일 오후 2시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일원에서 위령제를 열었다. 희생자 가족 400여 명은 새벽 2시, 오전 9시, 2차례에 걸쳐 안산에서 버스를

타고 팽목항을 찾아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시민이 보낸 추모 영상을 상영하고 ‘모형 세월호’를 이용한 풍물극과 ‘살타’의 공연, 출근 이상현씨와 김미선씨의 씻김굿 등이 이어졌다.

가족대책위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세월호 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특별조사위원

회 시행령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 보상도 아니고, 추모도 아니고, 심리치유도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직 밝혀지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세월호 1년이 부끄럽다”고 비롯한 심정을 전했다.

/팽목항=백희준기자 bhj@

## 중·고교생 95%

### “세월호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설 참교육연구소는 중고생 4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자신이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느끼는 것으로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겪은 일처럼 느낀다’는 응답은 28%, ‘친한 친구의 일처럼 느낀다’는 답은 20%였으며, 47%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신과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답은 5%에 불과했다.

현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는 응답이 50%, ‘해결된 것이 없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36%로,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86%로 집계됐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81%에 달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74%가 인양에 찬성했으며, ‘비용이 많이 들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5%), ‘국민의 세금이 들어 인양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5%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1년전처럼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조용한 위로

### 팽목항 구석구석 다니며 쓰레기 줍고 밥차 봉사

1년 전 비극의 현장에서 묵묵히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곁을 지켜줬던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다시 팽목항을 찾았다. 1주기 추모행사에 맞춰 팽목항을 찾는 세월호 가족들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다시 한번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15일 전남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세월호 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군과 함께 추모행

사 및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그동안 손질이 되지 않았던 팽목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일부터 시작했다. 또 미처 준비해오지 못한 추모객들을 위해 ‘밥 차’도 잊지 않았다. 찬 바닷바람을 고려해 따뜻한 차와 핫팩, 무료 담요도 나눠줬다.

팽목항의 자원봉사자들은 가급적이면 서로 대화를 아끼려고 하는 모습도 역력했



진도 팽목항 방파제 왼쪽 벽면에 ‘기억의 벽’이 조성돼 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타일에서 살아있었다면 올해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을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진도=박기웅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 06:00 ☀ 04:08 ☀ 16:16

하늘도 눈물 ☔ ☔ ☔

행사 영행반다가 오후부터 곳곳에 비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10/20	보성	7/20
광주	11/15	순천	9/21
여수	11/18	영광	10/19
나주	9/20	진도	10/17
완도	11/17	전주	9/22
구례	6/22	군산	9/18
강진	9/18	남원	5/22
해남	10/18	축산도	11/14
장성	8/2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1.0~2.0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남부 앞바다	남~남서 1.5~2.5	서~북서 2.0~3.0	서~북서 2.0~3.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1.0~2.5	남서~서 1.0~2.5	남서~서 1.0~2.5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0~2.0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 생활지수

수면	90
운동	70
빨래	90

◇ 주간 날씨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	☀	☁	☁	☀	☀	☀
7/19	9/22	13/18	11/21	9/21	8/22	9/22



서울서도 세월호 추모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서 학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청 찾아가 소란피운 기초수급자

○...광주의 한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던 중 담당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김모(39)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북구청 복지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저지당하자 공무원 A씨를 때린 뒤 또 다른 공무원 B씨 등 2명에게 욕설을 한 혐의.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 필요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문제와 관련,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출한 뒤 쫓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